

원유, 세계 수요증가율 둔화추세

IEA, 2011년 중반까지 공급 여유 ... 점진적인 경기부양 철회로

세계 석유 시장은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적어도 2011년 중반까지 여유 있는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석유 수요는 2011년 하루 135만배럴 가량 증가해 평균 8784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IEA가 월간 보고서에서 석유 수요를 전망한 것은 처음으로 2010년 석유 수요는 하루 평균 177만배럴 예상보다 8만배럴 상향 조정됐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석유 수요는 2011년에 하루 평균 21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IEA의 석유산업시장국 책임자인 데이비드 파이페는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점진적인 경기부양 철회"라며 "앞으로 12-15개월 실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시장침체 이후의 거품을 다소 거두어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석유 수요 증가는 주로 아시아, 중동 및 중남미에서 이루어져 "북미가 OECD의 성장엔진 역할을 더는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14>